



# 해양은 MJ 다음 3분기, LNG는 여름, 실적은 이번주

## 코멘터리

### 선가 공방

- Exmar는 한진중공업 수빅 파산으로 취소된 VLGC 2척 건조처로, 현대중공업과 중국 야드와 협의하다가, 결국 중국 Jiangnan과 \$73m~\$74m에 계약했습니다. LPG 추진이라 꽤 싸 보입니다. 현대중공업과는 가격 차이가 컸다고 전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고가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당사는 실주 보다는 선별 수주를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 현대중공업은 E1 용선발주로 현대LNG로부터 VLGC 1척을 수주했습니다.
- 현대미포조선도 Sun Enterprises로부터 MR탱커 2척을 \$37.5m에 수주했습니다.

### 돌아오는 해양...

-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인도 Reliance의 MJ FPSO 10억\$를 수주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뉴스 노출로 해석해 주가는 하락했지만, 5월초의 우리사주 락업 해제의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다시 3월 호주 Barossa FPSO 수주도 노리고 있습니다. TechnipFMC+SHI vs. Modeco로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합니다. 연말에는 나이지리아 Bonga FPSO도 빠르면 마무리됩니다.
- 노르웨이 국영 Equinor는 캐나다 Bay du Nord에 투입할 FPSO 건조 후보 아시아 야드들의 투어를 마치고, 곧 검토를 시작한다는 안내입니다. 올해말 조선사 숏리스트를 추리고, 내년을 기대하는 수주POOL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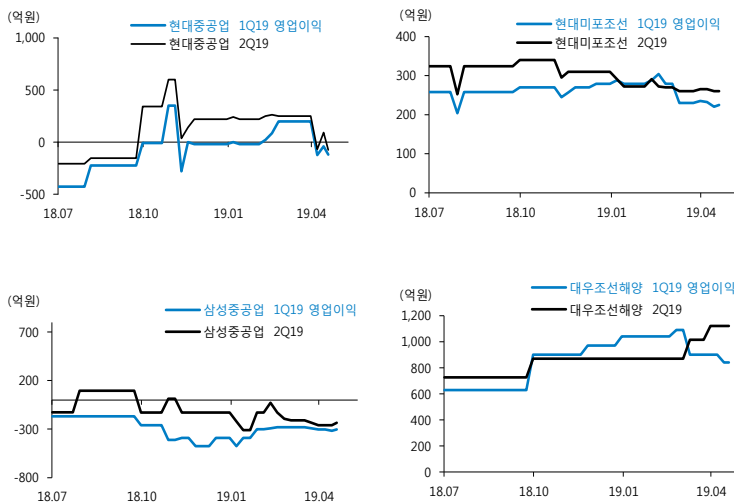
### LNG는 카타르 100척!

- 카타르 LNG선 발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초 Q-FLEX, Q-MAX 등 조합 60척이 언급되었는데, 최근의 뉴스들은 170k-CBM 기준으로, 최소 60척에서 10년간 최대 100척 이상이라는 업데이트입니다.

올해 대형 LNG선 발주는 대형 프로젝트들 없이도, 벌써 15척입니다. 여름 전후로 모잠비크, 카타르, 러시아 등에서 수십척이 쏟아지면, 이미 알고있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LNG발주 랠리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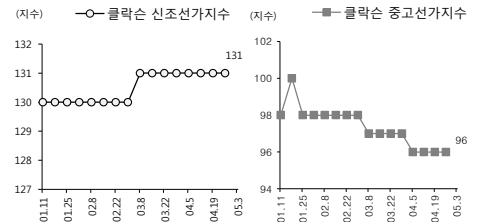
다음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실적 발표가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대형사는 적자폭 축소 여부가 관심입니다.

## ▶ 다음주 조선3사 실적발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소폭의 영업적자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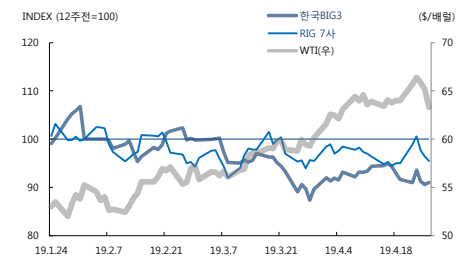


##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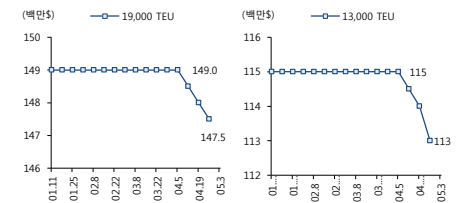
### ▶ 선가지수: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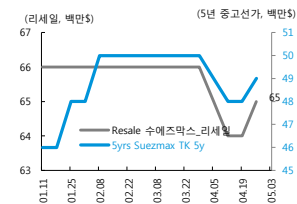
### ▶ 유가, RIG PLAYER, BIG3: 유가 좀 따라가자



### ▶ 초대형 컨테이너선 3주 연속 신조선가 하락



### ▶ 수에즈맥스 중고선가와 리세일 선가 상승



##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해양」

- ▲ 삼성중공업, 인도 Reliance의 MJ FPSO 수주: 공시도 나온
- △ Equinor, 새 FPSO 건조를 위한 아시아 YARD 투어 마친: 연말 숏리스트

### 「LNG carrier」

- ▲ 카타르 LNG 대규모 발주, 최소 60척 ~ 최대 100척 이상

###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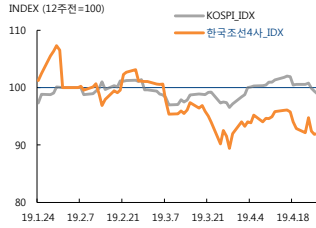
- ▲ Sun Enterprises, 현대미포조선에 MR 2척 발주
- ▲ 현대LNG, E1 용선으로, 현대중공업에 VLGC 발주하며 시장 진입
- ▼ Exmar, 수빅에서 취소된 VLGC를 중국 Jiangnan SY에 발주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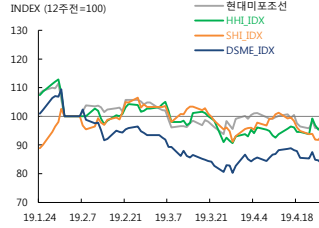


##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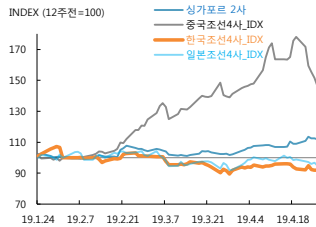
###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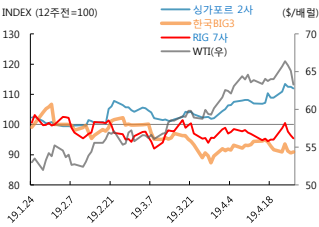
### ▶ 한국 조선4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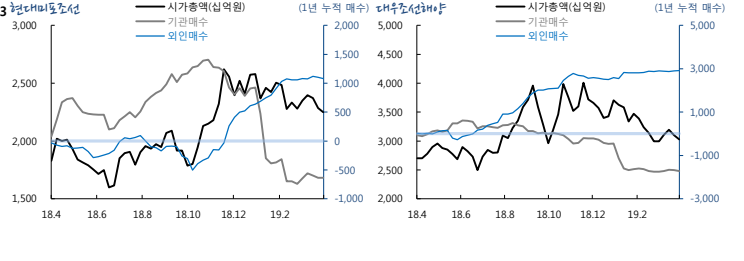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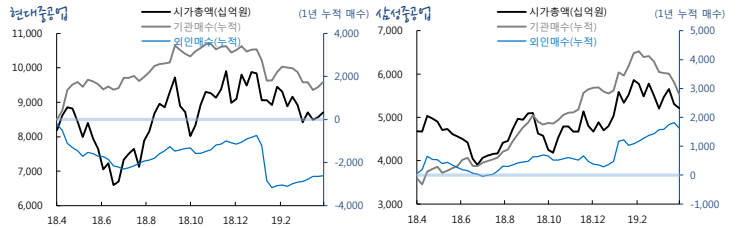
###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 ▶ 유가 → RIG 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한국 BIG3 현대미포조선



## 조선 수급



##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지수	WTI		1.1%	6.5%	7.7%		-7%	38%
	CRB INDEX		1.3%	0.4%	1.3%		-8%	0%
	Capital Link Container Index		2.5%	2.7%	2.7%		29%	-30%
조선사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8,018	1.7%	5.1%	1.8%		4%	17%
	삼성중공업	4,444	1.8%	1.7%	8.7%		11%	1%
	대우조선해양	2,999	2.2%	0.9%	1.6%		12%	49%
	현대미포조선	1,765	1.6%	2.1%	2.6%		23%	23%
	한진중공업	252	1.2%	1.2%	1.8%		50%	59%
싱가포르	KEPPEL	8,677	3.1%	2.8%	0.5%		16%	29%
	SEMBCORP MARINE	2,794	2.4%	5.5%	3.6%		18%	4%
중국조선	CSSC	2,266	4.3%	7.3%	7.3%		71%	5%
	CSIC	14,133	3.8%	5.9%	0.0%		13%	-8%
	CSSC OMEC	1,786	1.7%	7.4%	0.2%		23%	41%
	YANGZUIANG	3,231	1.9%	5.4%	6.3%		35%	59%
일본조선	NAMURA SB	326	1.6%	2.3%	5.4%		45%	55%
	mitsui ES	1,412	8.4%	4.3%	9.1%		42%	37%
	KAWASAKI HI	4,490	4.7%	5.5%	0.3%		30%	18%
	SUMITOMO HI	4,089	0.6%	1.2%	6.4%		6%	66%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400	1.5%	8.4%	3.4%		49%	29%
엔진 / 부품								
엔진	MAN	16,112	-0.3%	1.3%	-2.0%		25%	24%
	WARTSILA	11,633	-0.2%	2.9%	-0.3%		20%	5%
한국엔진	HSD엔진	126	-0.8%	-1.1%	-0.8%		8%	30%
	STX엔진	175	-0.4%	0.6%	5.5%		32%	16%
	STX중공업	69	-0.1%	-1.4%	-6.4%		38%	95%
	기타재							
기타재	한국카본	269	2.1%	-1.7%	15.1%		34%	21%
	동성화인텍	188	1.8%	3.0%	16.6%		24%	55%
	세진중공업	163	-0.6%	10.0%	31.1%		3%	29%
	삼강엔터티	103	-0.3%	4.9%	-1.9%		5%	44%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5,312	0.5%	0.1%	0.5%		29%	21%
	SEADRILL	2,070	7.0%	7.5%	2.6%		40%	53%
	DIAMOND DRILLING	2,371	0.7%	1.9%	2.6%		40%	75%
	NOBLE	1,471	0.4%	0.0%	7.8%		40%	75%
	ENSCO	3,200	3.1%	0.5%	4.9%		28%	32%
	ODFJELL SE-A SHS	335	0.0%	0.0%	3.8%		8%	12%
	ROWAN COMPANIES INC	2,037	0.0%	0.2%	9.8%		25%	42%
	OCEAN RIG LEAD INC - Dryship	2,806	0.0%	0.0%	0.0%		16%	00%
	ExxonMobil	348,527	0.8%	0.2%	0.3%		3%	9%
	Shell	272,235	1.1%	2.7%	3.3%		4%	37%
IOC+	BP	144,512	2.0%	1.9%	6.3%		3%	49%
	Total	167,925	1.9%	0.0%	3.3%		5%	12%
	Chevron	222,848	2.3%	4.6%	2.4%		8%	15%
	ENI	68,344	0.6%	1.6%	5.0%		5%	8%
	Equinor	88,189	2.0%	2.1%	0.4%		6%	37%
	SBM	3,674	1.8%	2.0%	4.4%		19%	42%
	TechnipFMC	13,494	2.2%	7.6%	3.8%		25%	18%
FEED.	SAIPEM	5,485	2.8%	2.9%	3.0%		24%	9%
	NOV	16,935	1.6%	4.1%	0.0%		29%	24%
	MODEC INC	1,745	5.2%	7.6%	6.4%		17%	03%
	WORLEY PARSONS	4,066	0.1%	2.3%	6.5%		5%	09%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28,327	-1.1%	7.4%	4.0%		6%	-3%
	SHIP FINANCE INTL LTD	1,686	0.3%	3.8%	7.7%		10%	16%
	CLARKSON PLC	1,093	8.2%	1.3%	8.5%		6%	7%
	EURONAV NV	1,816	-1.5%	7.9%	2.7%		22%	13%
	GOLDEN OCEAN GROUP LTD	1,311	2.6%	6.3%	13.7%		26%	36%
	FRONTLINE LTD	873	3.6%	2.2%	3.6%		79%	-2%
	NORDIC AMERICAN TANKERS LTD	288	2.0%	3.0%	3.2%		10%	86%
	KNOT OFFSHORE PARTNERS LP	729	1.4%	7.2%	7.0%		-1%	6%
	HOEGH LNG HOLDINGS LTD	410	-0.5%	7.5%	4.0%		16%	58%
	GASLOG LTD	1,523	-4.3%	10.5%	13.8%		-7%	23%
	GASLOG PARTNERS LP	1,079	4.3%	8.0%	2.8%		-11%	16%
	GOLAR LNG PARTNERS LP	908	0.8%	3.8%	8.9%		-36%	-26%
	BW Offshore	1,365	1.3%	10.6%	11.3%		9%	40%
	DORIAN LPG LTD	403	2.3%	3.6%	3.5%		11%	-20%
	EXMAR NV	425	2.7%	3.2%	10.3%		-1%	-24%



##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선가지수는 보합

- 신조선가: 울트라막스, 메가막스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3주 연속 하락했지만,
- 중고선가: 수에즈막스 탱커의 중고선가와 리세일 선가는 상승

### ▷ 수빅에서 취소된 2척 대체발주하는 Exmar의 VLGC 2척, 중국 장난에 실주: 가격 차이 때문

- 아래의 "기타" 섹션 참조
- ▶ 수빅에서 \$70m이, 중국 장난 조선에 \$73m~\$74m에 발주되었습니다. LPG 추진선임에도 꽤 쌉니다.
- ▶ 원래 현대중공업과 Jiangnan이 경쟁했는데, 현대중공업과는 가격 격차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 ▶ 현대중공업은 고가 수주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 당사 의견

## ▶ 해양

### ▲ 삼성중공업, 인도 Reliance의 MJ FPSO 수주: 공시도 나옴

인도 Reliance Industries는 \$967m의 FPSO를 삼성중공업에 발주: 2022년 3월 6일 인도 Commercial과 Technical Bidding은 작년 10월에 진행되었고, 삼성중공업은 일본 Modect과 TechnipFMC+SBM Offshore를 제치고 수주 FPSO EPC 외에도 O&M 계약도 추가되는 것으로 전함 FPSO는 60천b/d의 기름과 448MCF/D 가스 생산용량

▶ 삼성중공업은, 다음 3분기 호주 Barossa FPSO를 노립니다.

### [18년10월] ▲ 인도 Reliance의 MJ FPSO 입찰 살짝 밀림

- EPC사들의 technical & commercial bids 제출 기한을 지난달 9월말에서 10월15일로 연기
- 그러나 입찰 제출 데드라인이 10월은 넘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부언
- FPSO의 인도는 2021년 중반, 첫 생산은 2021년말~2022년초에 생산을 개시 예정
- 20억\$의 MJ FPSO에 Modect, 삼성중공업, TechnipFMC+SBM Offshore 최소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잡힘
- Reliance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최소 4~5곳이 참여하기를 기대
- 이 3곳 외에 Saipe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도 ITT를 발송한 것으로 전함

### [18년09월] ▲ 인도 Reliance의 MJ FPSO에 최소 3곳 경합 구도: 삼성중공업

- FPSO는 드라이도킹 기한을 최소 15년, 탑사이드는 20년 라이프 디자인을 요함: 60천/br 오일과 12.7MCMMD
- MJ의 파트너는 Reliance와 BP

### [18년05월] ▲ Reliance, MJ Floater 입찰 시작

### △ Equinor, Bay du Nord에 투입할 FPSO 건조를 위한 아시아 야드 투어 마침: 연말 쏟리스트

도전적인 캐나다 동부 Bay du Nord 개발을 위한 FPSO 제작처를 결정하기 위한 조선사 방문 미팅을 마침 방문 조선사는 한국 BIG3, 싱가포르 Sembcorp Marine가 언급되며, 아마도 중국도 방문했을 것으로 전함 올해말 조선사 쏟리스트를 추려, 입찰초청을 시작할 예정이며, 조선사 스테디는 4월말 시작할 것이라고 전함 캐나다 프로젝트여서 로컬 컨텐츠 요구사항이 있음

pre-FEED, 즉 Concept Study는 KBR, Wood, Aker Solutions가 마무리 중이며, Turret은 SBM Offshore와 NOV 중 한 곳이 pre-FEED 중

매장량 300백만barrel로, Deepwater 개발에서 애매한 수준이어서, 설계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이 중요하지만, Equinor는 이 프로젝트의 속도를 올릴려고 함: 현재 계획은 2020년 FID에 2025년 첫 오일 생산 FPSO는 94,000~188,000bpd 생산용량에 1.2백만barrel 저장용량이며, 12년~20년 가동 예정: 사업규모는 50억\$, BEP 유가는 \$50/barrel로 알려짐

▶ 갑자기 튀어나온, 2020년 FPSO 수주POOL입니다.

▶ 싱가포르도 끼여있고, 프로젝트도 도전적이며, 가격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POOL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 ▶ LNG

### ▲ 카타르 QP, LNG터미널 공사 입찰 초청

카타르 QP(Qatar Petroleum)은 NFE(North Field Expansion) LNG-Train의 3개 쏟리스트 컨소시엄에 입찰초청(ITT) Chiyoda + TechnipFMC vs. JGC + 현대건설, vs. Saipem + McDermott + CTCL(대만)의 3개 컨소시엄이 7.8MTPA x 4개 Train 건설 입찰에 참여

메인 LNG Train 외에도 Loading facility와 파이프라인의 2개 패키지가 더 있고, 3개 패키지 전체의 프로젝트 규모는 180억\$ 또한 North Field 드릴링을 위한 8개 offshore rig 입찰도 진행 중이고, 곧 LNG선 발주 입찰도 시작: 다음 단락에서

### ▲ 카타르 LNG 대규모 발주, 최소 60척 ~ 최대 100척 이상

카타르는 대규모 LNG선 발주 입찰을 시작함

1월에 60척 규모로 알려졌지만, 향후 10년간 100척 이상일 가능성도 큼: 170k-CBM 기준

발주처는 Qatar Petroleum과 ExxonMobil의 JV(70:30)인, Ocean LNG

Qatar Petroleum은 ExxonMobil은 미국 Golden Pass LNG 수출 프로젝트도 건설 중이며, 5년 내 상업운영 예정

▶ 카타르, 모잠비크 등이 나오기 전임에도, 이미 대형LNG선이 15척 발주되었습니다.

### [02월4주] ▲ 카타르 최대 60척 발주 의사 확인

2월19일, 카타르 QP 대표는 LNG선 최대 60척 발주설에 대해서 확인해줌

50척~60척의 Q-MAX, Q-FLEX가 될 전망: 이는 77MTPA → 110MTPA의 터미널 확장에 따름

과거 카타르 Q-MAX, Q-FLEX는 전량 한국 조선업이 건조했는데,

이번 발주에서도 한국+여타 조선사와 협의 중



## ▶ 기타 업황

### ▼ Exmar, 수빅에서 취소된 VLGC를 중국 Jiangnan SY에 발주

Exmar는 수빅조선소 파산으로 취소된 86k-CBM LPG선 2척의 건조처 변경을, 중국 Jiangnan Shipyard로 결정  
 메인 엔진은 LPG 추진, 중국 조선사는 최소 24개월의 공기를 요청  
 신조선가는 \$73m~\$74m으로 알려졌는데, 수빅에서는 \$70m에 계약한 바 있음  
 현대중공업에도 건조 협의를 했는데, 큰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실주는 부정적이지만, 현대중공업이 고가 수주를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 [03월1주] ▲ 벨기에 Exmar, 수빅에서 취소된 VLGC 2척 건조 조선사 물색: 현대중공업, 중국 Jiangnan

한진중공업-수빅 조선소의 섯다운에 따라, 이곳에 VLGC 2척을 2018년 3월에 발주한 Exmar는  
 80,200-cbm LPG선을 건조할 조선사를 물색 중: 현대중공업과 중국 jiangnan SY가 물망에 오름  
 이 선박은 이미 노르웨이 Equinor와 용선됨: 신조선가는 \$70m, 2020년 인도, 최초 LPG 추진선

### △ 일본의 Meiji Shipping, 미포 발주 8척 Shell에 이어 ExxonMobil에 용선 완판

Meiji는 미포에 발주한 MR 8척 중 4척을, ExxonMobil에 최소 5년 + 연장 옵션, \$15,000/일 중반에 용선  
 신조선가는 \$38m이었고, 2020년 1분기 인도 예정  
 Meiji는 이미 발주때부터 Shell의 Project Solar에 4척이 용선된 것으로 알려저음

### [04월2주] △ Meiji Shipping, 현대미포조선에 Shell 탱커 8척 발주

일본 Meiji Shipping은, 2020년말 인도로 현대미포조선에 4척+옵션 2척의 50k-DWT MR탱커 발주  
 Meiji는 올해 1월 선대 리뉴얼 차원에서, MR 탱커 4척(척당 \$38m)을 발주한 바 있음  
 시장에서는 이번 발주는 Shell의 Project Solar 신조 프로그램에 따른 발주라는 평가  
 만약 이번 발주가 Shell의 Project Solar가 맞다면  
 Shandong Shipping의 MR 10척 + 옵션 6척[ 중국 New Times SB ], Eships의 25k-DWT 6척[ 현대미포조선 ]과 함께 30여척이 구성됨  
 Meiji는 54척의 선대 운영: 벌크선 25척, 차량운반선 7척과 VLCC, 아프라막스 PC선, LPG선 등을 보유



##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 ㉠Samsung HI→Reliance Industries, FPSO(FPSO) 1척

- 위의 해양 섹션

#### ㉢Hyundai HI (Ulsan)→Kyclades Maritime, TK(158k-DWT) 2척

(04월2주 Flash) ▲ Kyclades Maritime,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4척 발주

- 그리스 Kyclades Maritime은 현대중공업에 158k-DWT 2척 + 옵션 2척을 계약: LOI 체결

- 신조선가는 \$64m~\$65m으로 알려짐: 옵션 행사 시 \$260m 규모

- Kyclades는 2016년에 일본 JMU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65m에 발주해, 작년에 인도받은 바 있음

- 현재는 현대중공업에 2년 전 발주한 VLCC 2척을 건조 중

#### ㉤Hyundai HI (Ulsan)→Hyundai LNG Shipping, LPG(84,600-CBM) 1척

- 위의 수주설

#### ㉦Hyundai Mipo→Sun Enterprises, PTK(50k-DWT) 2척

- 위의 수주설

###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 현대LNG, E1 용선으로, 현대중공업에 VLGC 발주하며 시장 진입

- 현대LNG는 84,600-CBM LPG선 1척을 3Q20 인도 예정으로 발주: Scrubber를 장착한 선박 신조선가는 \$74m으로 전해짐

- 이 선박은 한국 LPG 수입의 절반을 담당하는 E1과의 용선 기반: 7년 + 연장 옵션

- 2014년 현대상선에서 매각한 LNG 사업부를 IMM이 \$876m에 매입한 현대LNG는 8척의 LNG선(1994~2017년)을 운영 중

- 현대LNG는 25년간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을 거래해옴: 한국 FOB LNG 수입분의 28%를 담당해옴

※ LPG선은 고수익 선종입니다.

※ 현대의 LPG 수주는, 곧 세진중공업 호재입니다.

#### ▲ Sun Enterprises, 현대미포조선에 MR 2척 발주

- 그리스 Sun Enterprises는 2020년말 인도위 MR 2척을 \$37.5m에 발주: 2003년 이후 16년만의 MR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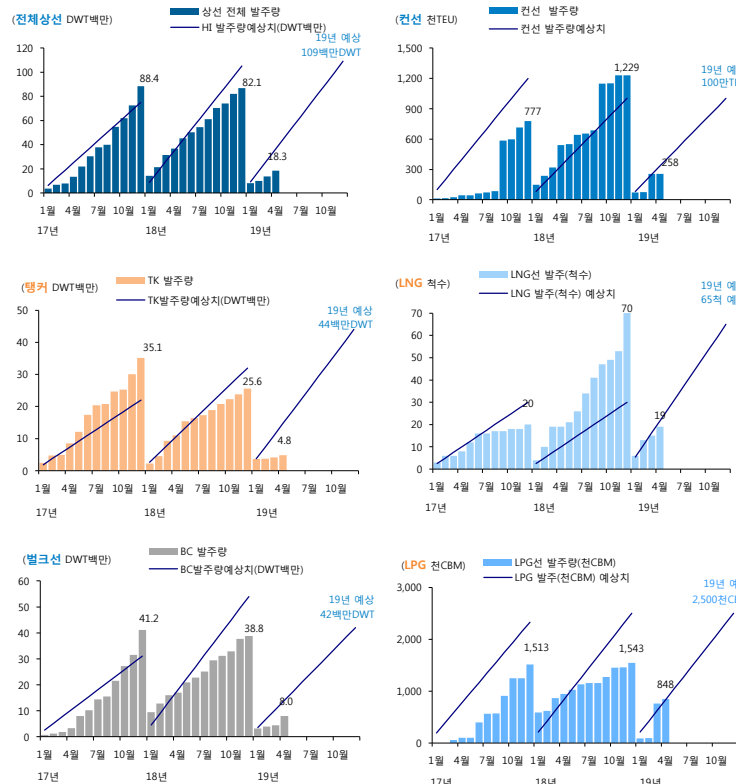
- Sun Enterprises는 1968년에 설립되어, 현대중공업에 최초로 VLCC를 발주한 선주이기도 함

- 2003년 현대미포조선에 MR 4척을 발주했고, 이번 발주는 선대 리뉴얼 차원

※ 3월까지 수주는 다소 느렸지만, 꾸준히 수주 소식들이 쌓입니다.

###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식: 클락슨 입력 DATA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선종	크기	인도	척수
<b>19년04월1주</b>								
중국	AVIC Dingheng SB	19.4.3	유럽	Furetank Rederi	PTK	18k DWT	2020	1
	New Dayang SB	19.3.1	중국	CDB Leasing	BULK	64k DWT	2020~2021	4
	Unknown China	19.3.28	유럽	Armo Shipping	BULK	9k DWT	2020	1
일본	Miura Zosen-sho	19.2.1	일본	Unknown Japanese	LPG	1k cu.m.	2020	1
					PTK	1k DWT	2020	1
	Shin Kurushima	19.2.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9k DWT	2020	1
<b>19년04월2주</b>								
BIG6	Daewoo (DSME)	19.3.29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4k cu.m.	2022	1
	Hyundai Mipo	19.2.1	한국	Sinokor Merchant	CONT		2020	2
중국	Fujian Southeast SB	19.4.4	유럽	Balttrader	BULK	174k cu.m.	2022	2
일본	Tsuneishi Zhoushan	19.3.29	아시아	Wesim Marine Group	BULK	5k DWT	2020~2021	1
	Naikai Zosen Setoda	19.2.1	일본	Toyotsu Shipping	RORO	63k DWT	2021	1
	Namura Shipbuilding	19.3.29	아시아	Wesim Marine Group	BULK	1k Lane m.	2020	1
<b>19년04월3주</b>								
중국	CIMC SOE	19.4.12	유럽	Avenir LNG	LNG	8k cu.m.	2021	2
	CMHI (Jiangsu)	19.4.11	북미	Starstone Ship	CRUISE	0k Berths	2021	1
	COSCO HI Yangzhou	19.3.1	중국	ICBC Leasing	BULK	81k DWT	2021	4
	New Times SB	19.4.12	아시아	Eastern Pacific Ship	PTK	110k DWT	2021	2
	Oshima Shipbuilding	19.4.9	아시아	Taiwan Navigation	BULK	80k DWT	2021	2
일본	Shin Kurushima	19.2.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4k DWT	2020	2
	Unknown Yard / Japan	19.4.5	일본	Sanko Steamship	BULK	20k DWT	2020	2
<b>19년04월4주</b>								
BIG6	Hyundai HI (Ulsan)	19.4.22	유럽	Kyclades Maritime	TK	158k DWT	2020	2
		19.4.16	한국	Hyundai LNG Shipping	LPG	85k cu.m.	2020	1
	Hyundai Mipo	19.4.25	유럽	Sun Enterprises	PTK	50k DWT	2020	2
	Samsung HI	19.4.22	아시아	Reliance Industries	FPSO	#VALUE!	2022	1
국영	Tianjin Xingang HI	19.4.26	중국	COSCO Shipping Bulk	BULK	210k DWT	2021	3
민영	Beihai Shipyard	19.4.25	중국	COSCO Shipping Bulk	BULK	210k DWT	2021	3
	COSCO HI Yangzhou	19.4.17	중국	COSCO Shipping Bulk	BULK	210k DWT	2021~2022	8
일본	Dalian COSCO KHI	19.4.26	중국	COSCO Shipping Bulk	BULK	210k DWT	2021	2
	Yantai CIMC Raffles	19.4.13	유럽	Wallenius SOL	RORO	8k Lane m.	2021	2
	Imabari SB (Imabari)	19.3.1	일본	Steel Kesen Kaisha	CONT	2k TEU	2020~2021	5
	Miura Zosen-sho	19.2.1	일본	Unknown Japanese	FERRY		2020	1



## 국내 보도

### ▶ 공통 보도

#### ▲ 카타르 LNG 처리시설 입찰...조선업, 대규모 수주 기대

<http://lnr.li/hWES8>

카타르 국영석유회사(Qatar Petroleum)는 북부지역에서 LNG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LNG처리시설의 EPC(설계·조달·시공) 패키지 입찰에 3개 컨소시엄을 초청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카타르의 LNG 생산량은 연간 40%(3천120만톤)가량 늘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은 ...  
... “한국이 선박을 수주한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난 만큼 앞으로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가능성

#### ▲ 해양플랜트 마수걸이...남은 5건 놓고 조선 빅3 수주전

<http://lnr.li/0n7Q>

시황 회복과 함께 모처럼 해양사업에 훈풍이 불면서 올해 남은 해양플랜트 수주 전망도 밝음: 올해 발주가 예상되는 해양플랜트는 총 5건  
올해 입찰결과 발표가 유력한 유전개발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람코 마르잔 프로젝트를 비롯해 ...  
... 베트남 블록B 해양가스생산설비(CPF), 캐나다 키스파, 호주 바로사 FPSO,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FPSO 프로젝트  
상반기 내 결과 발표 예정인 아람코의 마르잔 유전개발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뤄지는 2개 해양 패키지 사업으로 공사비 60억~70억\$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

#### ▷ 조선 빅3 임협, 빅딜 속 ‘지뢰밭 험로’

<http://lnr.li/uvXJ>

올해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란 대형 이슈로 유독 쉽지 않은 협상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기본급 12만3526원(6.68%) 인상이 골자인 요구안을 확정  
노사 간 임금협상에 수년째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인수 관련 물적 분할이란 새 변수까지 겹쳐 합의점 찾기는 더욱 요원할 것으로 예상

#### ▲ “한국 주도 LNG추진선이 대세...6년후 신규 발주 60% 차지”

<http://lnr.li/7CGLa>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2025년 전세계에서 발주되는 선박 10척 가운데 6척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  
LNG운반선이 2025년까지 최대 1천962척이 건조되고, 선박에 LNG를 연료로 공급하는 LNG병커링선도 2016년 31만3천t에서 2030년 320만t으로 10배 이상 수요  
세계 대형 LNG연료추진선의 6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됨을 전제로 국내 주요 LNG 선박기자재 시장규모가 2017년 3조원 규모에서 2020년 12조원 규모로 4배 증가  
IMO는 온실가스와 산성비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 규제를 시행  
: 대안으로 꼽히는 선박연료 LNG는 기존 석유계 연료에 비해 오염 배출이 훨씬 적은 데다가 온실가스도 20% 이상 감축할 수 있고 연비도 거의 대등  
이어 IMO 규제 적용 의무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기자재(선박평형수 처리장치:스크러버:SCR)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향후 5년간 2천500억 \$(약 284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을 예상; 국내 시장도 2016년 약 2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친환경 선박기자재 설치를 위한 선박 수리·개조(레트로핏)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  
: 전세계 선박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48.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계 선박 레트로핏 시장 규모도 내년 6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 현대중공업 보도

#### ▷ 현대삼호중,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수주

<http://lnr.li/foTqD>

싱가포르 PSA와 최근 컨테이너 크레인 4기 계약을 확정  
: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와 구매, 제작, 설치, 운송, 현장 시운전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맡아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2022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  
향후 같은 사양의 컨테이너 크레인 4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

#### ▷ 현대LNG해운, 현대중공업에 초대형가스선 1척 발주

<http://lnr.li/KQqWz>

현대LNG해운은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7년 용선 계약 체결: 현대LNG해운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VLGC를 발주  
2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한 현대LNG해운은 LNG 한국수입물량의 약 28%를 국내에 공급

#### ▷ 현대중, 임금·합병 갈등 장기화 조짐

<http://lnr.li/tpcFo>

현대중공업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노조의 근로조건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회를 여는 등 설득작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현재까지 누적된 7조500억원의 부채도 현대중공업이 떠안게 돼 근로자 처우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  
현대중공업 노조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인수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투쟁 방향을 다각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은 지난 2014년에 크게 적자를 본 이후에 노사 간 그 해에 끝난 적이 단 한 번 밖에 없을 정도로 노사 간 의견 차가 컸다”  
... “정황상 그렇게 (교섭 장기화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 기계연, 현대중공업과 AI 차세대 함정 사고대응 공동 연구

<http://lnr.li/NXTXn>

기계연은 25일 대전 본원에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AI 기반 예측진단과 사고대응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MOU'를 체결  
스마트밸브와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자율사고대응 기술, 함정 탐제용 주요장비의 고장진단 및 예측, 한국형 손상통제체계, 적정 승조원 수 분석기술 등 개발 협력

### ▶ 삼성중공업 보도

#### ▲ “나이지리아, 선박 발주 자금 4조 확보”...삼성중, 순풍에 돛단다

<http://lnr.li/RfrP6>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 현지 조선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최근 현지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  
나이지리아가 최근 선대 확충 기금으로 35억\$를 확보하면서 선박 발주가 임박  
: 해당 기금은 국가 콘텐츠 개발관리(National Con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Board, NCDB)가 관리하는 석유 및 가스 개발 펀드에서 지원되는 자금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30억\$에 나이지리아 에지나(Egina) 프로젝트를 수주, 나이지리아 회사와 지분을 투자해 합작 조선소를 세웠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지에서 조선 기자재를 일부 생산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어 현지 생산조선소가 있는 삼성중공업이 수주전에서 유리





## ▲ 삼성중공업, 1조1000억원 규모 FPSO 건조계약...올해 첫 해양플랜트

<http://lnr.li/yacbh>

삼성중공업은 아시아지역의 선주로부터 1조1040억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PSO) 1척을 수주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며 2022년 3월까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해 해상유전을 출항할 예정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일감을 따낸 건 2017년 6월 이탈리아 ENI와 계약한 '코랄 FLNG'(부유식 LNG 생산 설비·25억4000만\$) 이후 2년여 만  
이 외에 올해 호주 바로사 FPSO, 나이지리아 봉가사우스웨스트 FPSO 등의 해양플랜트 수주도 노림

## ▶ 대우조선해양 보도

### ▷ '조선업 지원 강화' 해군 특수전지원함 사업 올 하반기 본격화

<http://lnr.li/7Kt4>

9월 대우조선해양과 2000억대 체계개발 계약 예정...지원함 4척, 침투정 20여 척 건조

## ▲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대 규모 도크서 4척 동시 건조

<http://lnr.li/K8kGn>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그 중 2척이 진수  
1도크에서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건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1993년 이후 26년 만에 봄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중인 759척의 VLCC 중 대우조선해양이 단일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139척을 건조했으며, 현재 수주잔량도 28척으로 가장 많음  
특히 수주에 있어서도 지난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44척의 VLCC 중 16척을 수주해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0척 중 6척을 수주해 건조

## ▷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재 받을 수도

<http://lnr.li/T3etk>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시적 공공입찰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 더 누적돼 10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대우조선 역시 벌점 8.75점이 누적돼 입찰 제한 요건 기준에 해당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확정짓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함

## ▶ 중형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 중형조선사 올해도 한숨만...대규모 적자가 예상

<http://lnr.li/qLrzu>

지난 2018년 한진중공업의 조선부문 영업이익은 1707억원 적자를 기록  
: 대한조선의 경우 영업이익 341억원 적자, 성동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감소, STX조선해양도 영업이익 적자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  
이 같은 부진은 대형 선박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며 조선 빅3에 발주 집중 때문  
: 지난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2600만CGT를 돌파, 국내조선사들은 1090만CGT 가량을 수주, 중형조선사들이 차지하는 수주량은 약 4%에 불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중형조선사 전용 선수금급부보증(RG) 프로그램의 경우 중형조선사가 평소 수주하는 선박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

## ▷ 한진중공업, 주식 매매거려 재개

<http://lnr.li/X1Mtg>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 건설부문 수주 잔량만도 4조원 대  
인천 울도부지 등 7000억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가시권

## ▷ 대선조선,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중형조선사 유일

<http://lnr.li/TCueW>

대선조선은 지난해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중형조선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흑자전환  
매출액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해 3019억원을 달성, 순손실 역시 204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감소  
2020년부터 시행되는 IMO 환경규제를 앞두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사업 지원이 있기에 가능  
범주해운과 남성해운 등 국내 선사들로부터 1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

## ▷ HSD엔진 65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http://lnr.li/pjLJ>

HSD엔진은 뉴스타에이치에스아크제일차 주식회사가 ABL 대주 및 ABB 투자자로부터 빌린 650억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결정  
: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2310억원) 대비 28.14% 수준이며, 보증 기간은 2020년 7월 25일

## ▷ HSD엔진, 조선업 빅2 재편에 전략 다변화로 대응

<http://lnr.li/09xpg>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에 따라 판매 전략을 다변화; 삼성중공업과 중국 조선업체의 수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선업 '빅2' 체제를 준비  
매출의 84.4%가 선박엔진 부문; 선박엔진은 선가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부문  
조선업 수주 불황의 여파로 매출이 매년 급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HSD엔진의 공급물량도 영향을 미칠 것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 중 80~90%는 HSD엔진의 선박엔진을 쓰고 있다.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HSD엔진의 공급 물량 조정도 예상

## ▷ 새 주인 찾는 성동조선, '마지막 도전' 성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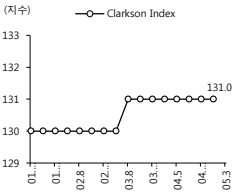
<http://lnr.li/BwWUJ>

성동조선해양은 매각주관사 삼일PwC를 통해 인수의향서를 접수 중; 매각공고는 이번이 세 번째  
창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반년 연장해 오는 10월 18일로 못 박은 만큼, 사실 상 마지막 시도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  
이번 매각에 실패할 경우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 최소 5곳 이상에서 인수의향서 제출을 타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인수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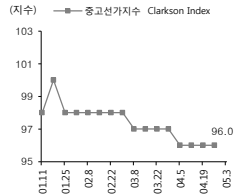


##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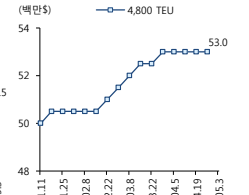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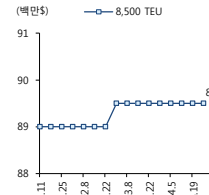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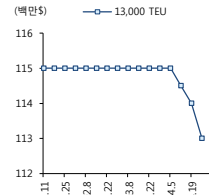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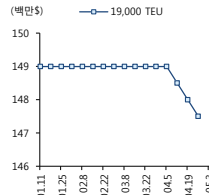
###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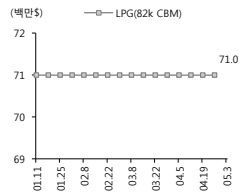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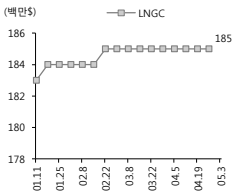
###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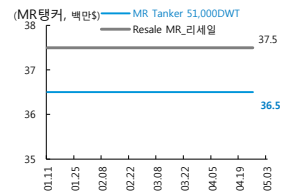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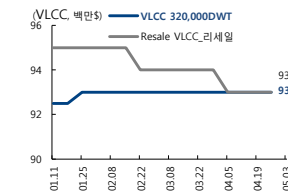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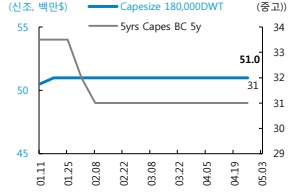
### ▶ 가스선들



### ▶ 탱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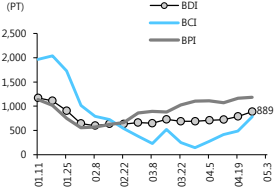


### ▶ 벌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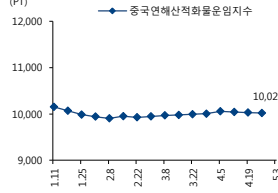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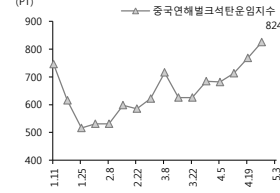


##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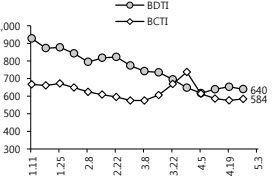
###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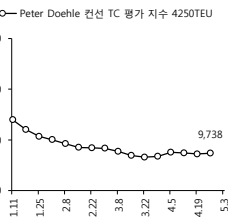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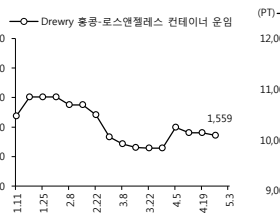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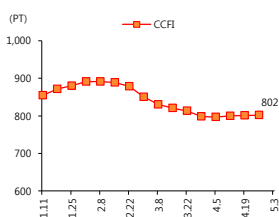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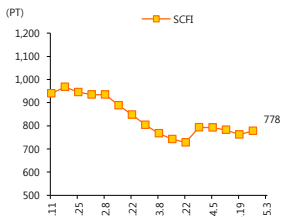
### ▶ 중국



###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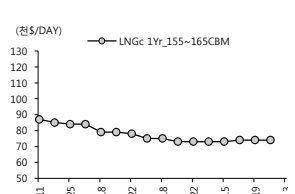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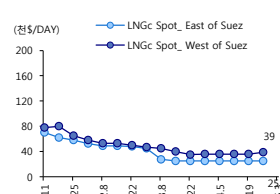


##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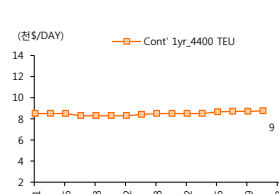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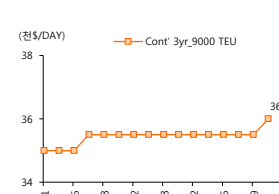
###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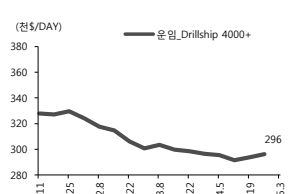
###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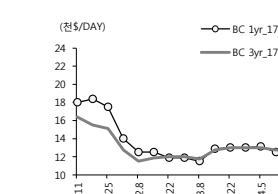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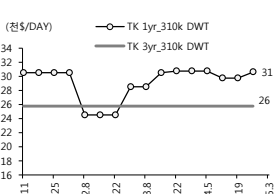
###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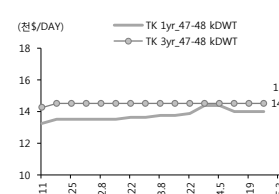
### ▶ 벌크 - 케이프



### ▶ 탱커 - VLCC



###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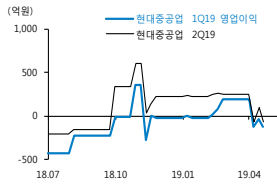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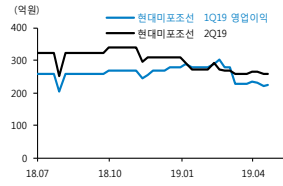


##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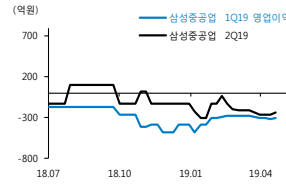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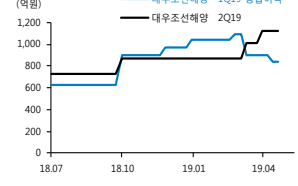
###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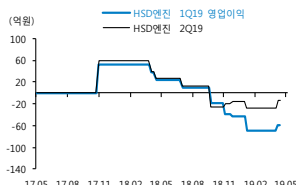
###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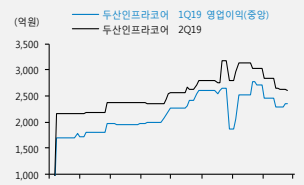
###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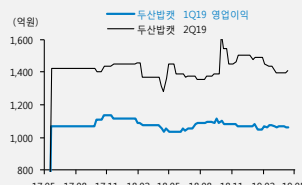
###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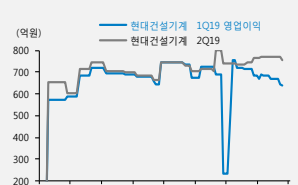
###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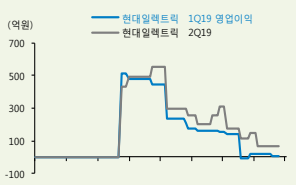
###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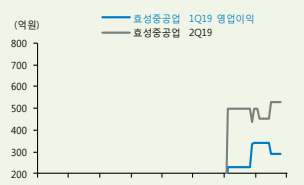
###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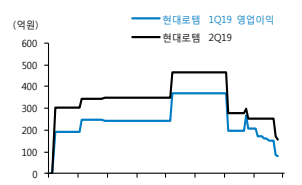
###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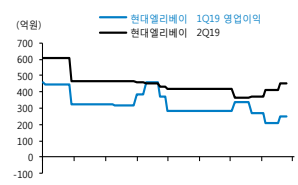
###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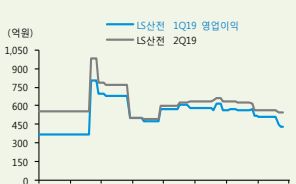
### ▶ 현대로템



###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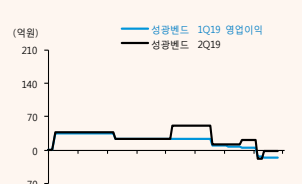
### ▶ LS산전



### ▶ 두산중공업



### ▶ 성광벤드



### ▶ 태광



출처: Dataguide

##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9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9.03.30	19.04.06	19.04.13	19.04.20	19.04.26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9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03	-795	-844	-841	-995	-995	-681	-704	-723	적지	적지	-169.7	123,000
	삼성중공업	-74	-89	-95	-42	-54	-80	-80	-87	-88	적지	적지	-94.0	8,270
	대우조선해양	2,563	2,670	2,607	2,821	2,530	2,285	2,095	2,159	2,159	-23%	-15%	13.1	28,250
	현대미포조선	4,724	2,275	2,390	2,264	1,976	1,992	1,992	2,000	1,973	-13%	0%	28.5	56,300
	HSD엔진	-158	-484	-475	-371	-344	-199	-199	-94	-94	적지	적지	-41.6	3,910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1,000	5,365	5,242	5,464	5,380	5,389	5,389	5,389	5,338	-2%	-1%	8.9	47,700
	두산인프라코어	1,660	1,612	1,592	1,371	1,369	1,435	1,435	1,435	1,392	2%	2%	5.1	7,130
	두산발렛	3,235	3,119	3,095	2,894	2,944	2,944	2,944	2,944	2,993	3%	2%	10.4	31,200
발전/중전기	두산중공업	1,328	823	607	706	706	706	706	706	746	6%	6%	9.4	7,030
	현대일렉트릭	2,506	1,202	857	701	555	464	464	464	464	-34%	-16%	49.9	23,150
	LS산전	5,392	5,333	5,327	4,947	4,863	4,863	4,825	4,767	4,767	-4%	-2%	10.1	48,15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560	1,498	1,395	1,399	1,614	1,616	1,616	1,630	1,630	17%	1%	21.3	34,700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1,270	1,292	1,250	1,195	1,275	1,197	1,213	1,213	1,213	2%	-5%	25.1	30,400
	LIG넥스원	2,366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0%	0%	21.3	36,750
	현대로템	746	615	597	428	365	365	365	365	294	-31%	-19%	76.0	22,350
	현대엘리베이터	3,498	3,412	3,216	3,240	2,983	2,983	2,983	2,983	2,983	-8%	0%	29.5	88,000
피팅	성광벤드	161	204	205	-17	-17	-17	-17	17	17	흑전	흑전	663.6	11,600
	태광	411	360	360	370	352	352	352	396	396	7%	13%	29.8	11,800
	하이록코리아	1,396	1,172	1,172	992	992	992	992	992	992	0%	0%	20.1	19,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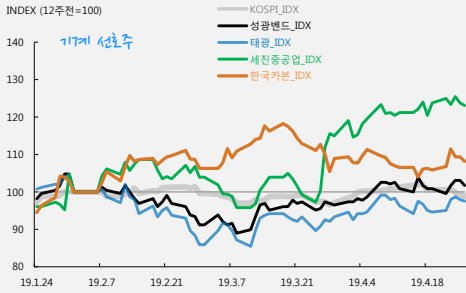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9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9.03.30	19.04.06	19.04.13	19.04.20	19.04.26	2019	2020	2019 PBR
조선	현대중공업	172,968	167,061	167,108	166,641	168,190	168,190	169,358	168,489	168,774	0%	2%	0.73
	삼성중공업	12,089	12,033	12,063	12,261	12,255	12,419	12,419	12,388	12,372	-1%	1%	0.67
	대우조선해양	40,180	41,038	40,115	39,592	38,422	38,059	37,734	37,848	37,848	6%	6%	0.75
	현대미포조선	120,021	60,015	60,114	61,276	60,088	59,043	59,043	59,044	58,963	3%	4%	0.95
	HSD엔진	7,054	6,757	6,706	6,851	6,894	6,762	6,762	6,964	6,964	-1%	8%	0.56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40,596	69,861	69,739	69,574	70,127	70,113	70,113	70,113	69,878	8%	8%	0.68
	두산발켓	38,728	38,682	38,708	38,374	38,516	38,516	38,516	38,516	38,918	8%	8%	0.80
	두산인프라코어	11,875	11,423	11,424	11,144	11,124	11,303	11,303	11,303	11,254	12%	12%	0.63
	두산중공업	29,545	29,634	30,347	26,559	26,560	26,560	26,560	26,560	26,631	3%	3%	0.26
발전/중전기	현대일렉트릭	92,847	47,749	48,329	46,855	45,598	45,667	45,667	45,667	45,667	1%	5%	0.51
	LS산전	47,285	47,122	47,056	46,462	46,511	46,509	46,625	46,696	46,696	10%	11%	1.03
	한국항공우주	12,910	12,358	12,145	11,996	12,371	12,078	12,078	12,040	12,040	14%	13%	2.88
방산/기타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43,881	44,873	45,955	47,051	47,809	47,615	47,543	47,543	47,543	3%	4%	0.64
	LIG넥스원	29,443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6%	7%	1.28
	현대로템	16,224	15,718	15,762	13,242	12,863	12,863	12,863	12,863	13,053	2%	4%	1.71
	현대엘리베이터	44,775	38,773	38,478	38,478	32,182	36,011	36,011	36,011	36,011	8%	10%	2.44
피킹	성광벤드	16,114	15,951	15,855	15,488	15,581	15,581	15,581	15,581	15,581	0%	2%	0.74
	태광	17,031	16,778	16,778	16,778	16,788	16,788	16,788	16,788	16,788	2%	3%	0.70
	하이록코리아	25,710	25,674	25,674	25,233	25,233	25,233	25,233	25,233	25,233	4%	4%	0.7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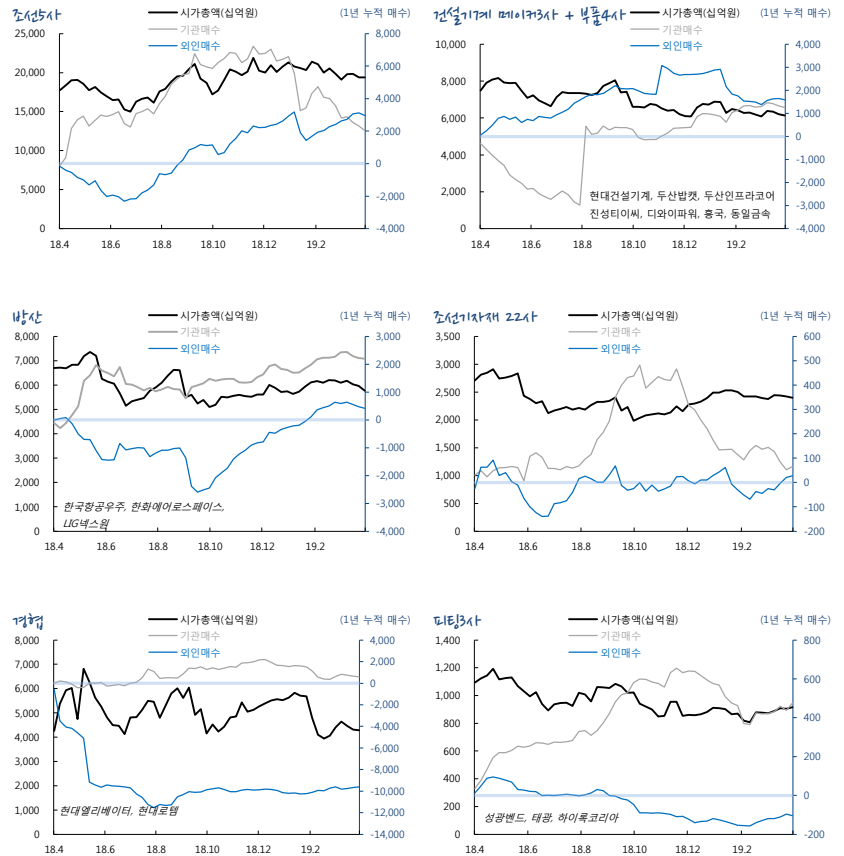
##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 당사 기계 선호주



## 당사 군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 기계 업종 뉴스

### 증전기

#### ▶ 효성중공업 "내분에 갑질논란까지"...공사비용 떼 먹는 대기업들

<http://lnr.li/cpePD>

피해업체는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추가 공사를 시켜놓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

### 큰 기계

#### ▶ 현대로템, 현대차와 후기술 시너지로 '무인차량' 고도화

<http://lnr.li/FTc6r>

2027년까지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

: 2022년까지 방산 부문에서 90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 고객 중심의 사업모델 강화를 내걸고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자체 제품 브랜드 체계 구축에 전력

현대로템도 지난해 처음 선보인 보병지원용 무인차량 HR-SHERPA(HR-셰르파)와 같이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독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

... 기업 인지도와 제품별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업전략에도 혁신 변화를 추구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네트워크 통합된 복합무기체계로 변해 가고 있는 점도 새로운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 포인트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무인차량은 원격 또는 자율주행 기반으로 모듈화한 장비

아울러 하이브리드, 전기구동 등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구동 시스템도 조기 도입해 효율적인 동력계통을 확보할 계획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류도 기존에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양산 시 효율성을 확보하기 좋으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유리한 경제적 장점

현대로템은 기존 보유한 전자,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무인화기를 고도화에도 주력해 최적의 무인체계를 개발해나갈 계획

#### ▶ 현대엘리, 'GBC 프로젝트'에 한국산 위임 보이나

<http://lnr.li/LMkFe>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승강기 업계의 물밑 경쟁이 치열

: GBC에 설치될 100여 개의 승강기 입찰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티센프루프 등이 경쟁

GBC는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상징성'과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로 평가

초고속, 고속, 중저속, 화물용 등 100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 초고속 승강기는 한 대당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2007년부터 1위; 범 현대가인 데다 입찰 후보 중 유일하게 국내 기업인 점도 주목

#### ▶ 현대엘리, 베트남 호아빈건설 3대 주주로... 전략적 제휴 나서

<http://lnr.li/kdzn7>

베트남 2위 건설사 호아빈 건설 그룹(HBC)의 3대 주주 지위를 확보: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는 HBC 주식 2500만주(약 280억원)를 취득해 지분율 11.3%

HBC는 향후 시행사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제품을 전량 채택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건축 참여 사업에서 동사 제품을 우선 검토



#### ▷ 두산중공업,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 조성 나선다

<http://lnr.li/nEECa>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과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부지 공급, 예상 확보,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  
두산중공업은 수소액화 플랜트를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방식으로 건설하고 두 기관과 함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수소액화 플랜트는 하루 0.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

#### ▷ 현대로템, 이집트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020년 6월 첫 인도

<http://lnr.li/eYQX3>

지난 2017년 수주에 성공한 이집트 카이로 3호선 전동차의 납품을 오는 2020년 6월 진행할 예정  
현대로템은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공급사업을 두고 프랑스 기업 알스톰사와 경쟁을 벌였지만, ...  
... 최종적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2억4300만 유로(약 2587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수주를 따낸 바 있음  
이집트는 철도사업 파트너로 현대로템을 선정해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철도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

### 방산

#### ▷ KAI,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독자개발 추진...연내 시험비행

<http://lnr.li/hf32r>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처럼 다가올 미래 전장에 대비해 차세대 무인기와 미래형 개인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에 박차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

#### ▷ 방산청 인도에서 방산세미나, 왕정홍 "방산협력 이어간다"

<http://lnr.li/TMcWQ>

LIG넥스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인도 방산업체와 대공포와 유도무기의 강점을 동시에 지닌 비호 복합체계사업에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  
왕 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을 만나 비호 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  
이번 세미나에는 한화디펜스,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 12곳이 참여  
인도 측은 인도군의 방산물품 획득절차 등을 발표하며 양국의 방산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  
LIG넥스원은 이 자리에서 인도 방산업체인 아다니그룹과 인도 비호 복합체계사업의 현지 생산 및 마케팅을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맺음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00억 회사채에 8,300억 물려

<http://lnr.li/Cd1Bp>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1천2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수요예측  
800억원을 모집하는 3년물 5천400억원, 400억원 규모의 5년물 2천900억원 주문이 각각 들어왔다  
수요예측 결과가 잘 나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대 2천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오는 6월과 8월 만기 도래하는 1천800억원 회사채 차환에 보탬 계획



##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822	-0.8%	1.5%	-7.7%		-45%	
	두산인프라코어	3,280	-2.6%	0.7%	-16.1%		-24%	
	두산발켓	3,280	0.6%	1.1%	-7.6%		-1%	
대형	CATERPILLAR	88,596	-3.0%	6.0%	1.8%		-4%	79%
	KOMATSU	28,397	0.5%	11.5%	4.2%		-24%	50%
	HITACHI CM	6,748	2.1%	2.1%	8.3%		-26%	67%
	VOLVO	37,036	1.7%	9.4%	21.9%		0%	62%
중국	SANY	9,741	-9.2%	-3.1%	38.0%		37%	121%
	XCMG	4,493	-11.0%	4.4%	36.6%		12%	35%
소형	DEERE	47,942	-2.4%	4.3%	0.2%		20%	96%
	CNHI	16,348	-3.7%	6.3%	5.2%		-12%	40%
	TAKEUCHI	1,317	0.7%	8.6%	9.5%		-17%	23%
	TEREX	2,994	-2.9%	3.2%	6.6%		-11%	38%
건설기계 부품	디와이파워	167	-10.2%	-7.0%	-4.2%		-23%	102%
	진성티미씨	174	-3.8%	5.0%	0.2%		-16%	39%
	우림기계	56	1.8%	10.5%	-2.7%		-10%	6%
	흥국	59	-8.4%	-9.2%	-5.9%		12%	163%
	동일금속	67	3.2%	6.2%	6.2%		21%	24%
	KUBOTA	20,295	2.6%	4.0%	-0.9%		-9%	1%
	가야바	1,045	-0.7%	8.2%	4.0%		-43%	-19%
	Hengli	2,806	-9.1%	-14.6%	25.1%		31%	192%

방위산업 / 항공부품								
항공	한국항공우주	3,945	-3.9%	-2.8%	1.3%		-23%	-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2	-1.5%	11.0%	-0.7%		16%	-27%
방산	LG넥스원	212	-4.7%	-8.7%	2.4%		-13%	-59%
	아스트	212	-7.1%	-9.3%	14.7%		-24%	-29%
	Boeing	208,880	0.2%	1.8%	4.4%		12%	182%
	LOCKHEED MARTIN CORP	97,743	4.5%	11.7%	16.1%		2%	41%
	Northrop grumman	55,307	0.7%	7.3%	5.7%		-12%	37%
	EADS	95,076	0.5%	4.0%	27.7%		16%	121%
	BOMBARDIER	8,437	-13.0%	-12.5%	10.5%		-44%	17%
	EMBRAER	3,497	-0.5%	5.5%	-6.3%		-24%	-15%
	ROLLS ROYCE	24,242	0.9%	2.7%	2.3%		9%	37%
	ROCKWELL COLLINS	23,154	0.0%	0.0%	0.0%		6%	60%
	HARRIS CORPORATION	19,745	0.5%	4.7%	16.6%		5%	108%
	GENERAL DYNAMICS	60,622	0.7%	6.9%	5.6%		-13%	27%
	SAFRAN	61,753	4.5%	10.7%	17.5%		36%	115%
	SPIRIT AERO	9,621	2.1%	-3.2%	9.9%		9%	85%
	TRIUMPH	1,161	0.1%	25.6%	69.4%		-1%	-34%

공작기계 / 기타 철								
공작기계	화천기계	94	-2.1%	1.5%	2.2%		-18%	-22%
	와이지원	307	-5.5%	7.7%	12.6%		-32%	5%
기타	신진에스엠	55	3.0%	5.3%	19.0%		-18%	-55%
	S&T중공업	197	-1.2%	0.4%	-0.4%		3%	-34%
	Shenyang	813	-10.7%	-3.5%	-9.1%		-27%	-55%
	Amada	3,927	-3.0%	12.7%	14.6%		-6%	11%
	Moriseiki	2,092	-6.8%	14.0%	15.3%		-23%	25%
	Jtekt	4,983	-5.2%	5.4%	3.9%		-19%	0%
	Okuma	1,862	-1.8%	9.2%	19.9%		4%	48%
	Makino	1,081	-6.0%	5.0%	7.9%		-10%	595%
	Schuler	1,082	0.8%	-3.1%	-18.0%		-22%	-9%
	Gildemeister	4,124	-6.1%	3.8%	4.0%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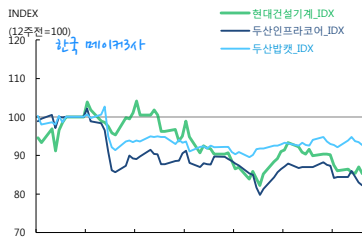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피팅	성광벤드	325	0.9%	4.5%	5.9%		-6%	-5%
	태광	341	3.1%	5.4%	1.7%		-18%	10%
	하이록코리아	286	0.0%	7.8%	8.7%		-25%	30%
발전	두산중공업	1,561	1.3%	3.2%	24.6%		-53%	73%
	비에이치아이	89	9.4%	0.0%	25.3%		-46%	13%
	S&TC	100	1.6%	2.4%	7.9%		-8%	48%
	DONGFANG	3,299	-3.0%	6.0%	22.4%		37%	17%
	BHEL	3,761	6.1%	0.0%	0.8%		-18%	15%
	MHI	12,498	1.2%	0.3%	9.4%		7%	6%
	IHI	6,105	1.2%	1.2%	22.3%		-27%	8%
	SIEMENS	108,438	1.1%	9.8%	4.5%		0%	15%
	General Electric	110,029	2.4%	3.9%	9.9%		31%	69%
	ALSTOM	10,311	2.1%	3.7%	15.5%		5%	78%
중전기	LS산전	2,059	0.3%	1.0%	20.3%		-26%	-8%
	효성중공업	594	4.8%	3.6%	17.9%		-43%	
	현대일렉트릭	570	4.7%	7.4%	3.9%			
	ABB	52,239	1.0%	3.4%	8.8%		-9%	3%
	Schneider	46,621	0.9%	0.7%	20.7%		2%	34%
	WEG	9,660	2.4%	9.3%	2.0%		6%	63%
	Crompton Greeves	1,918	2.9%	7.4%	0.5%		-1%	
풍력	TBEA	3,795	6.7%	4.4%	7.9%		-2%	-7%
	씨에스윈드	495	1.6%	1.8%	37.1%		14%	81%
	유니슨	179	2.2%	0.4%	3.2%		-53%	-17%
	동국S&C	212	1.4%	1.3%	6.4%		-44%	50%
	태용	256	2.4%	2.5%	1.4%		-46%	44%
	VESTAS	13,561	0.9%	0.5%	17.4%		49%	31%
	GOLDWIND	5,672	-0.1%	0.7%	15.9%		26%	-4%
	NORDEX	1,051	3.8%	1.4%	65.6%		54%	40%
	GOLDWIND	5,672	-0.1%	0.7%	15.9%		26%	-4%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2,285	-2.0%	1.4%	-22.3%		9%	25%
	ALSTOM	10,311	-2.1%	3.7%	15.5%		5%	78%
	안saldo	2,925	0.0%	0.0%	0.0%		2%	20%
	Bombardier	8,437	-13.0%	-12.5%	10.5%		-44%	17%
	CNR	64,357	1.6%	7.9%	16.6%		27%	65%
	CAF	1,478	0.3%	2.6%	14.6%		9%	52%
	CSR	33,804	-4.0%	-12.6%	-9.8%		2%	-9%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554	0.8%	8.8%	-23.5%		-6%	52%
	KONE	28,609	1.7%	9.9%	11.2%		17%	23%
	UTC(OTIS)	111,677	2.8%	11.5%	23.6%		15%	35%
	SCHINDLER	26,134	-0.7%	4.1%	4.2%		12%	20%
	THYSSENKRUPP	14,554	-5.8%	6.0%	-19.4%		-42%	-37%
	MITSUBISHI ELEC.	29,169	3.9%	10.7%	18.4%		-6%	32%
	HITACHI	32,140	1.2%	3.4%	6.2%		-8%	615%
	SHANGHAI ELEC.	9,990	-3.5%	3.4%	14.3%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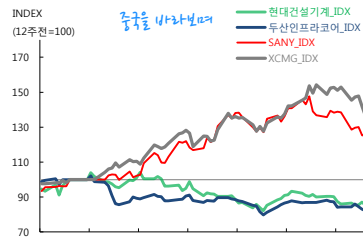


##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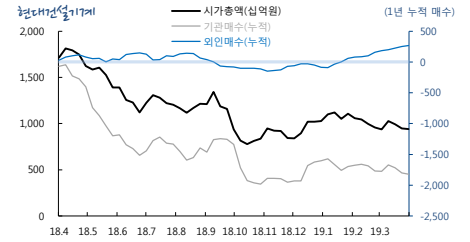
###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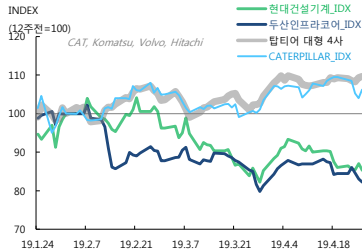
###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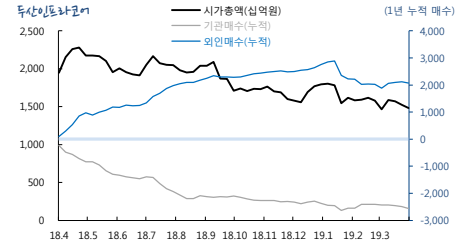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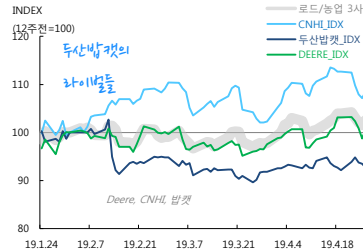
##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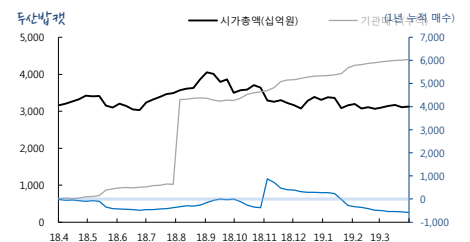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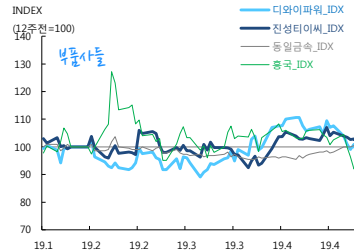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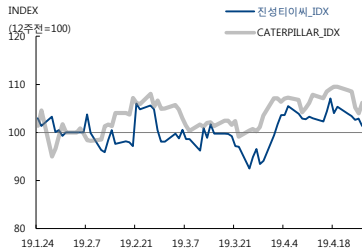
###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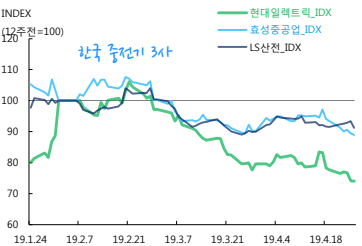


###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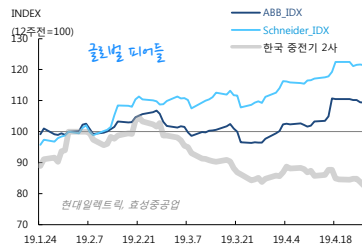


##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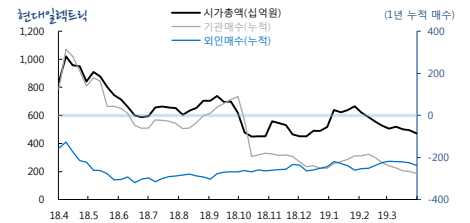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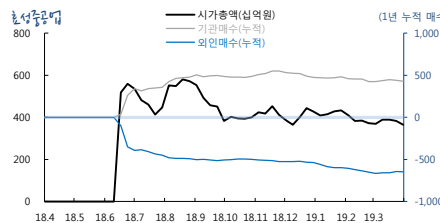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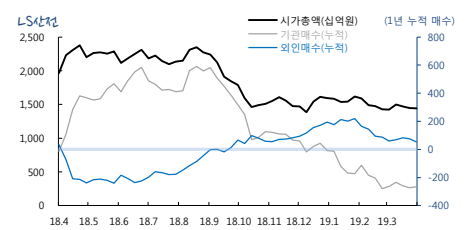
### ▶ 한국 중전기 3총사



###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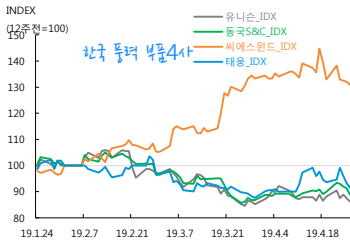
##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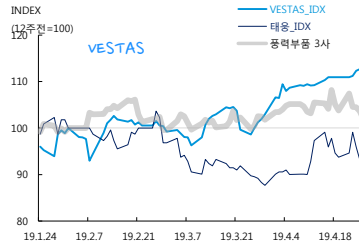


##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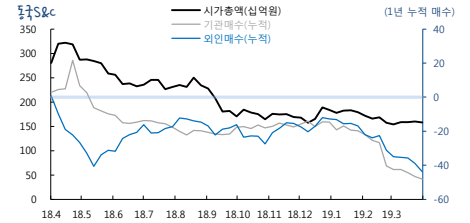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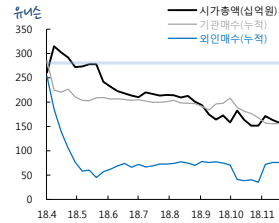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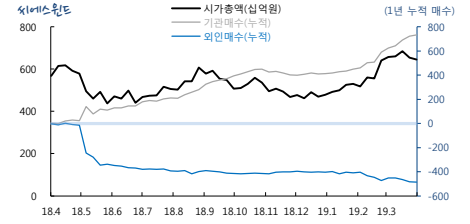
### ▶ 한국 풍력 부품4사



###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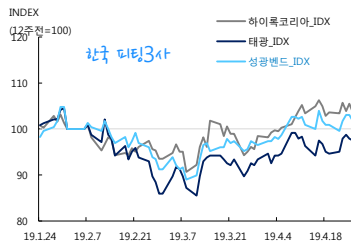


###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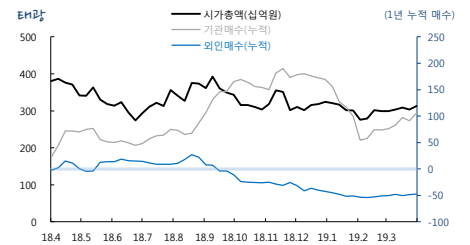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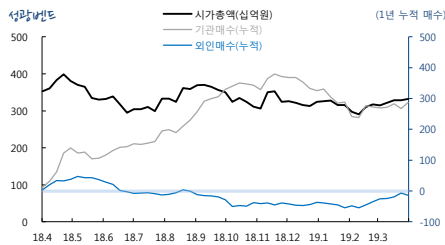


##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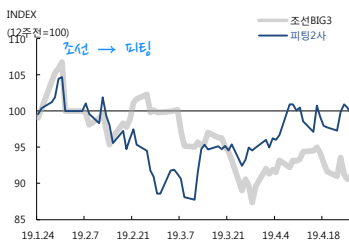
###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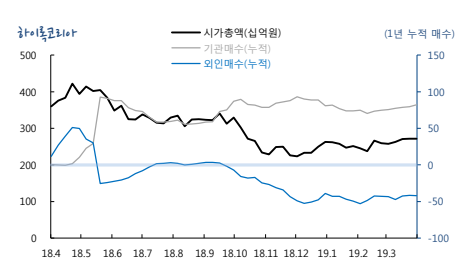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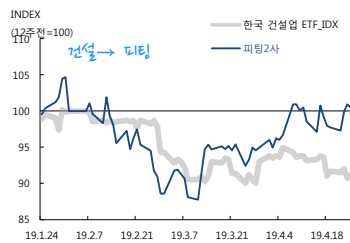
###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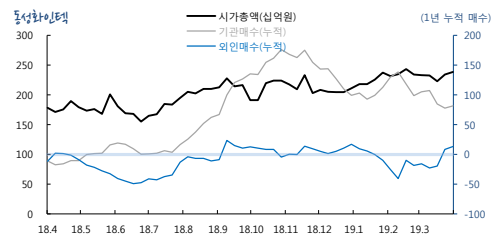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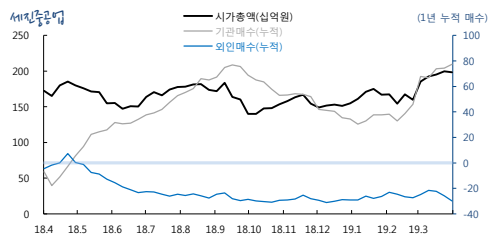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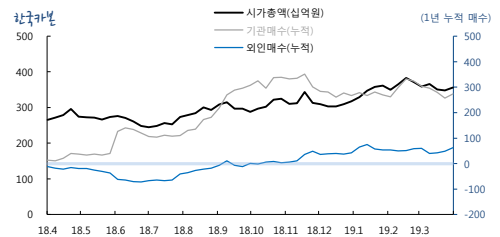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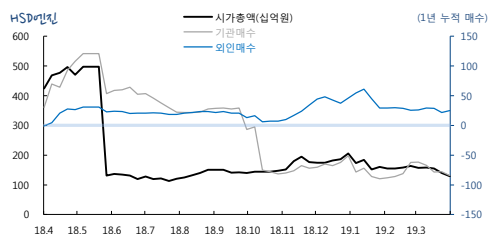
### ▶ 조선 → 피팅2사



###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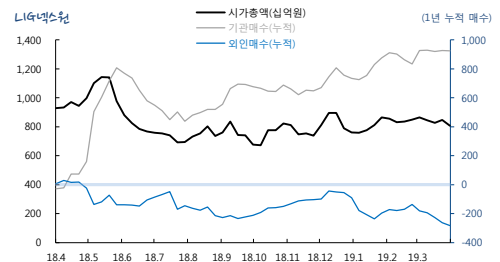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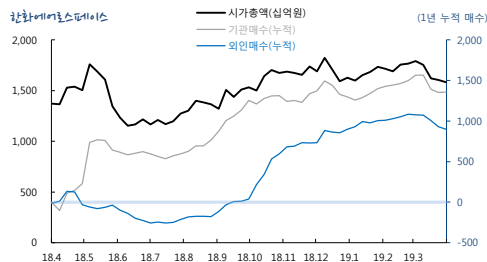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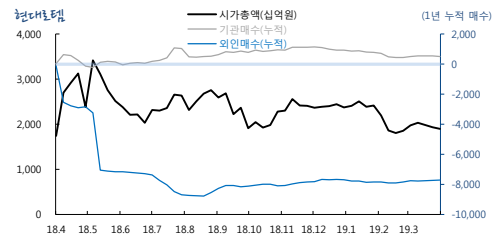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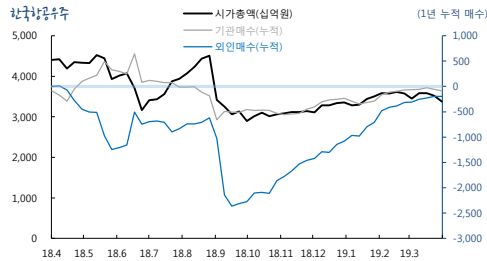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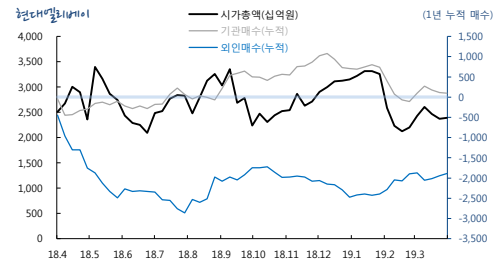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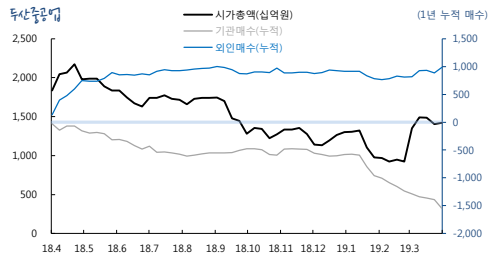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수급







## 기타 큰 기계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9-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4%	11.6%	